

# 북한 근·현대문학사 기술 체계와 분단극복을 위한 문학적 실천

손진은\*

## 차례

- |                       |                           |
|-----------------------|---------------------------|
| I. 들어가는 말             | 2. 수용 작가와 작품선택 양상         |
| II. 북한 문학사 기술의 체계와 양상 | III.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학적 실천 |
| 1. 시대 구분과 그 의미        | I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우리 문학은 1970년대 말 이래로 근래에 이르기까지 분단극복을 위한 문학적 실천<sup>1)</sup>이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하루 아침에 어느 일방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이 땅의 민

\* 경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1) 최근 우리 쪽에서 북한 문학사와 문학에 대한 고찰을 다룬 대표적인 저술은 아래와 같다.

신형기, 『북한 문학사-항일혁명에서 주체문학까지』, 평민사, 2000.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김중희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1』, 청동거울, 1999.

김중희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주화의 진전과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탈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국근대문학사의 연속성 회복이라는 주제는 남쪽의 ‘한국문학’과 북쪽의 ‘조선문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sup>2)</sup>하며, 이질성 가운데서 공통성을 찾는 노력에 의해 그 극복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그 공통성의 분모를 카프 문학의 전통에서 찾고 이기영에서부터 황건에 이르기까지 해방 전부터 작품을 써온 작가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근대문학의 연속성 위에서 추적하고 있는 김윤식 교수의 업적<sup>3)</sup> 등은 그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남북한문학사의 전반적인 성격과 내용, 변모과정, 최근 북한문학의 경향과 지향점, 주요 작가와 작품의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 접근<sup>4)</sup>,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인정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탐구<sup>5)</sup> 등의 작업은 분단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위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취해진 재북·월북문학과 문인에 대한 개방조치는 대략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 첫 번째는 1976년 3. 13조치인데, 이는 통일원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학사 복원과 관련하여 학문적인 연구를 허용한다는 단서 아래 해방 전의 순수문학작품으로, 지금은 생존하지 않는 재북, 월북문인에 한한다는 극히 제한적인 단서가 따라붙었다. 이어 1987년 10월 19일의 두 번째 조치로 북한문학의 상업적 출판까지가 가능해졌고, 세 번째가 1988년 3·13조치로 정지용, 김기림이 해금되었으며, 네 번째인 1988년 7·19조치로 120여명에 달하는 1, 2, 3차 월북문인(재북, 남북문인 포함)<sup>6)</sup>에 대한 전면적인 해

2) 권영민, 『북한문학을 보는 눈』, 『문학사상』, 2002. 11, 34쪽.

3)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4) 김종희 엮음, 앞의 책(1999, 2002),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나남, 1995)가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5) 김종희 엮음, 앞의 책(2002)의 『남북에서 함께 읽는 이광수의 염상섭』과, 류만이 1990년 4월 16일 바르샤마에서 열린 ASKE(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제14차 회의에서 『1920년대는 조선에서 현대적 시문학이 새롭게 발전하던 역사적 시기』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상화의 <통곡>, 한용운의 <님의 침묵>, 김소월의 <초혼>, 정지용의 <향수>에 관한 논문이 대표적이다.

6) 여기서 월북 문인이라 함은 ‘조선문학가동맹’(‘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조선문학건설본부’) 시기부터 6.25 전쟁 사이에 북한으로 갔거나 월북과 남북(혹은 재북)이 명확하지 않은 문인까지를 포함한다. 1, 2, 3차 월북자는 아래와 같다.

금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문학사 복원을 위한 대전제로서 우리 문단에 나타난 전향적인 조짐들을 이와 같은 네 차례의 재북, 월북 작가의 해금발표와 결들여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 내부의 힘의 성숙과 세계사의 진전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 문학의 이론서와 작품들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동안 반쪽으로 남아 있었던 우리 문학사의 복원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질화의 두께와 깊이에 대한 빈틈없는 인식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남은 것은 북한의 이론서와 작품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 문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당위를 전제하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문학사 관련 서적에 나타난 근·현대문학사 기술의 체계를 우리의 시점으로 관찰하고, 나아가 근래에 발표된 남북한 문학에 나타난 합일지향의 정신을 분석함으로써 분단문학 극복을 위한 하나의 작은 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 II. 북한 문학사 기술의 체계와 양상

북한 근대문학 연구의 기본 방향은 당이 규정하고 있는 문예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의 문예정책은 문학예술의 본질과 가치 규정, 그 목표에 대한 제시, 그리고 문학예술의 실천방법 등에 관한 요구로 크게 나누어진다.<sup>7)</sup>

- 
- 1차 월북자 : 이기영, 한설야, 한효, 이동규, 윤기정, 박세영, 안함광, 송영, 안막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연결하면서 주도권 상실하면서 월북)
  - 2차 월북자 : 임화, 김남천, 이원조, 오장환, 이태준, 임학수, 박팔양, 김오성, 윤세중, 안희정(미군정이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인정, 탄압한 47년 이후부터 정부 수립 직전까지 월북)
  - 3차 월북자 :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설정석, 이용악, 송완순, 홍효민, 김용호, 이광수, 김동환, 박영희, 김진섭, 김억 (6·25 전쟁시기에 월북, 납북, 재북자도 포함)

7) 권영민, 『북한에서의 근대문학연구』, 『문학사상』, 1989. 6, 134쪽.

따라서 당 대회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북한문학의 전개과정을 아는 첩경이 된다. 제6차 당 대회까지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당 대회(1946. 8)는 민주기지론이 주창된 시기이며, 제2차 당 대회(1948. 3)는 문단의 형성과 문학단체의 정비, 사회주의 문학의 초석이 잡혀진 시기이다. 제3차 당 대회(1956. 4)는 북한문학사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시기로 남로계를 비롯한 종파주의 청산, 전통계승, 마르크스-레닌주의로의 무장 등을 그 이념적 골자로 한다. 문학사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1950~1953)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1953~1958)로 나뉜다. 천리마 시대로 상징되는 제4차 당 대회(1961. 9)는 사회주의적 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 형식이 옹기 결함되어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67년 김일성에 의하여 『주체문예이론』이 간행된 이후 제5차 당 대회(1970. 11)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에 주체사상이 역동적으로 결합되었으며, 모든 문학예술은 유일사상의 형상화 쪽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북한의 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적 미학적 원칙보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성의 이념을 더욱 중시하였다. ‘카프 문학’은 물론 다양한 민족문학 계열의 주요 문인들의 작품은 문학사에서 배제된다. 주체문학, 수령형상문학으로 지칭되는 그 특징적인 현상은 1926년을 기점으로 하는 항일혁명문학예술(<피바다>, <꽃파는 처녀>)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요구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주체사상의 기초는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강령으로 남아 있다. 제6차 당 대회(1980. 10)에서는 주체사상의 문예이론이 종자론과 결부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주체론에 내재하는 형식을 이룬 시기이다.<sup>8)</sup>

북한 문학사 역시 위에서 언급한 당 대회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필자가 텍스트의 자료로 삼은 북한의 근·현대문학사 자료는 ① 『조선문학통사 상·하』(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59:인동, 1988.), ② 『조선문학사 1·2권』(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2), ③ 『조선문학사 1~5권』(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1982), ④ 『조선문학개관』(정홍교·박종원·류만, 사회과학출판사, 1986), 그리고 ⑤ 『조선문학사』전 5권(1978~1982)을 새로이

8) 임현영, 『북한의 문학과 예술』, 『실천문학』, 1989. 여름호, 82쪽.

개편, 전체 15권 중 현재 14권까지 간행된 『조선문학사』(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1990~) 등 5종이다. 이상의 5종은 크게 ①과 ②, ③, ④, ⑤로 그 내용이 구분되는데, 그 구분의 근거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작성된 ‘주체문예이론’이다. 즉, 북한은 문예창작의 유형과 성격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정책과 이론 체계를 기반으로 당대적 요구 사항과 의미에 따라 수직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후대로 올수록 주체 문예이론이 요구하였던 이념적 성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④는 ③을 축약하여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제외되었던 작가들을 문학사에 끌어들이거나,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는 등 작가들에 대한 완화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변모는 ⑤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조선문학사 9』(1995)에서는 1967년 『주체문예이론』이 공표된 이후 문학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카프’ 계열의 문인들은 물론 민족문학 계열의 많은 문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개진함으로써 북한문학의 질적 변화와 안목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문학사에 관련된 문제와 지향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시대 구분과 그 의미

문학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시대 구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사의 시대구분 및 서술체계는 문학사 서술을 일관하여 흐르는 정신이나 문학사 사설의 원칙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는 1900년을 시작으로 1919년, 1930년, 1945년, 1950년, 1953년 등을 시기 구분선으로 하여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다. 각 시기별 시대구분의 원칙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단계와 대응하는 우리 운동단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19119년의 3.1운동을 구분의 기점으로 삼은 것도 3.1운동이 러시아 사회주의

9) 신형기는 이를 두고 북한의 전체주의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한 지배라는 관점에 선다고 말한다. 즉, 하나의 이야기가 형식적으로 고정되는 관점(단성주의)을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치는가를 밝히고 있다.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 항일혁명에서 주체문학까지』(평민사, 2000).

10월 혁명의 영향 밑에서 일어난 것<sup>10)</sup>으로 파악하는 데서 그 초점이 주어지고 있으며, 1930년은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행정에서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으며, 농업집단화 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sup>11)</sup> 것에 대응하는 우리 나라의 운동이 시기구분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1945년 이후의 문학사를 서술하는 첫 문장이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력사적인 8·15 해방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장래 운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 인민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 이행할 수 있는 시초로 되었다.”<sup>12)</sup> 라는 문장이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기구분의 가장 큰 획이 되는 연대는 1910년과 1926년이며 다른 것은 ①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③의 경우에 있어서는 1910년대 문학의 극복계기가 3·1운동으로 지적되면서도 그것이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 1926년 이후의 문학이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과 그 영향 하에 ‘카프’ 등의 모든 진보적인 문학이 놓여 있는 모습으로 된다.

북한에서의 문학연구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미학적 요건과 그 원칙을 방법론의 공식으로 이용한다. 이는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에서도 유일하고 가장 올바른 원칙으로 내세워지고 있으며, 문학예술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개념과 방법론은 각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서술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근대문학연구가 어떤 내용과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북분단 이후의 정치체제 변화와 그에 따른 문학예술정책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주의 예술미학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당의 문예정책과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문학예술적 실천이 문학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 문학예술의 창작활동은 당의 산하 조직에 속하는 ‘북조선 문학예술동맹’의 결성(1946. 3)과

10) 『조선문학통사』 하권,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59. 여기서는 도서출판 인동(같은 책, 1988), 31쪽 인용.

11) 위 책, 103쪽.

12) 위의 책, 175쪽.

함께 집단화되었고, 문학연구의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의 개설(1952)과 김일성종합대학의 개교와 함께 본격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예술 운동과 그 연구 작업은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른바 김일성 유일사상에 입각하여 주체사상의 이론을 확립하고, 그 구체적 실천의 대안으로 1967년 김일성이 『주체문예이론』을 간행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1967년부터 당면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주체사상’은 1967년 6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룡성기계공장에서의 김일성의 지도, 1967년 조선노동당 제4기 제15차 전원대회에서 김일성이 내놓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독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는 공화국 정부 정강, 그리고 1968년 1월의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3)</sup> 북한은 대내적인 경제위기와 대외적인 전쟁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나름의 정책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김일성의 영도력을 더욱 확고하게 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이 주체사상으로 나타났다. 이 『주체문예이론』에 나타나는 주체사상과 주체문학의 논리는 ‘수령형상문학’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문학 및 문화 장르에 걸쳐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1980년대 주체문학론에 부수하는 현실 주체문학론의 등장 이전까지는 어떤 작은 변화나 반성적 성찰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용했다. 즉, ‘수령형상문학’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숭배 일변도로 움직이는 문학은 그 체제 내의 삶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실제적 진실<sup>14)</sup>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문학사를 ‘주체문예이론’이전과 이후로 구분했을 때,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은 이전의 것이 이후의 것보다 더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문예이론’대두 이후의 문학사는 1926년 10월을 현대문학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서술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 1926년 10월 17일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한 날이 주체사상의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대두된 이후의 문학사는 주체사상의 역사를 새롭게 찾아내고 재인식하게

13) 힘 출판사 편, 『철학사전』(1985), 225쪽.

14) 김종희, 『최근 북한문학의 변화와 분단사적 의미』, 『문학사상』, 2002. 11, 40~41쪽.

되었다는 명분 아래 그 이전의 문학사를 전면 수정, 서술의 내용까지도 바꾸고 있다. ‘주체문예이론’ 이전의 북한문학은 혁명적 낭만성, 혁명적 낭만주의, 주인공의 전형성, 대중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의 문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체문예이론’의 등장 이후부터는 카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데서 출발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논쟁이 항일혁명문학에 그 주도성을 넘겨주게 된다. 민족적인 문예형식의 전형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항일혁명 문학 예술(<피바다>, <꽃파는 처녀>)은 노동계급의 영도 아래 인민대중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문학예술이 본받아야 할 불멸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문학사는 이와 같이 ‘주체문예이론’에 근거를 둔 당성, 노동계급성, 역사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가치를 분석,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반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논쟁은 주체문학의 필연적인 도래를 논증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1967년 이후에는 사실주의 논쟁이 완전히 중단되었다.<sup>16)</sup>

시대구분을 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①은 각 시기를 장르별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각 장르 속에 다시 대표적인 작가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문학사적 공적을 부각시키고 있다. 목차를 서술해 보면<sup>17)</sup> 아래와 같다.

### 제1장 1900~1919년의 문학(1. 산문, 2. 시가)

#### 제2장 1919~1930년의 문학

15) 주체사상의 문예이론에서는 혁명적 문학전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당성’으로, 속하지 못하는 것은 ‘당파성’ 혹은 ‘경향성’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즉, 계급사회의 문학예술은 모두 사상적 경향성과 계급성, 당파성을 가지게 되나 혁명사상이 구현되기 이전의 문학예술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당성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는 당성이 김일성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으로 귀결된다. 즉, 수령의 유일적 영도-당의 영도 실현 = 당성 구현이 당성문제의 핵심이다. 백진기, 『북한의 문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실천문학』, 1989 여름, 83쪽.

16) 김동훈, 『북한 학계 리얼리즘 논쟁의 검토』, 『실천문학』, 1990 가을, 101쪽.

17) 『조선문학통사·하』,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59. 여기서는 도서출판 인동, 같은 책, 차례.



I. 프롤레타리아 문학(1. 산문, 2. 시문학, 3. 평론)

II.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외의 이 시기 진보적 문학

제3장 1930~1945년의 문학

I. 김일성 원수 항일 투쟁과정에서의 혁명문학(1. 산문, 2. 시문학)

II. 온갖 부르조아 반동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문학 혁명론의 역할 및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승리

제4장 해방후 문학-평화적 민주건설기 시기의 문학-해방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1. 산문, 2. 시문학, 3. 희곡)

제5장 조국 해방전쟁시기의 문학

전시문학의 전투성을 강화기 위한 당의 정책(1. 산문, 2. 시문학, 3. 희곡)

제6장 전후시기의 문학

사회정치적 환경과 이 시기 당의 문예정책(1. 산문, 2. 시문학, 3. 희곡)

이 시기 문학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문학사 서술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사에는 아직 1926년 10월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의 동맹을 결성한 것이 문학사에 시대구분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국내의 프롤레타리아 문학활동(카프)을 압도하는 것으로까지는 서술되고 있지 않다. 김일성의 활동은 그 중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의 작은 장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문학사가 마르크스-레닌주의 방법 하에서 과거문학을 정리하였으므로 과거문학으로서 현재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문학사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외적인 변수가 문학사 정리에 작용하고 있으니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 남로당 문인들의 제거에 있다. 이에 비해 한설야 등에 대한 부각은 이 정치적 성격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 이전의 북한문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작가들은 이상화, 조명희, 이기영, 송영, 한설야, 박팔양, 박세영, 엄홍섭, 이북명, 강경애 등의 작가들이며 이들 중에서도 한설야, 이기영, 송영, 윤기정 등 프로예맹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홍정선은 이들이 북한문단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다.<sup>18)</sup> 첫째, 프로예맹 쪽 문인들이 먼저 월북하여 북한에 있던 이북명, 안함

광 등 소수의 명망 있는 문인들과 손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 둘째,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임화, 김남천, 이태준, 이원조 등 거물급 카프계 인물들이 대부분 거세되었다는 사실, 셋째, 김일성의 해계모니가 확립단계에 있어서 문학분야와 같은 주변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주체사상 이전의 문학사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문학에 대한 서술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카프계열의 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몇 가지 선별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카프에 활동했으나 친일행위를 하였거나 남쪽에 남은 사람(김기진, 박영희, 권환 등)은 배제하며, 남로당과 관련되어 제거된 사람들<sup>19)</sup>(임화, 김남천, 이원조, 설정식 등) 역시 배제하며, 해방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상, 조명희, 최서해 등)은 가급적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④는 프로문학을 포함한 진보적 근대문학을 철저히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영향 하에서 발전한 것으로 고정시켜 놓은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시기구분의 중요한 준거들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또한 그의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의 폭을 구조가 감당하지 못하여 체제상으로 통일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⑤에서는 시기가 좀더 세분된다. ⑤에서 나타나는 해방 이후 시기를 살펴보면,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 조국해방전쟁 시기, 전후문학 및 천리마문학 시기, 유일주체사상 시기, 김일성·김정일 통치시기 등이다. 그러나 유일주체사상의 사상적 체계와 반영은 지금까지도 모든 문학 장르에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 줄기는 ③, ④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근·현대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문학사의 시대구분에는 북한의 역사발전단계에 상응하는 당정책과 당이념

18) 홍정선, 『카프와 주체사상의 관계』, 『문학과 비평』, 1990 가을, 125쪽.

19) 이들은 남조선에서 반혁명 문학예술단체를 조직하고 민족문화는 계급문화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떠벌이면서 문학예술의 당성, 인민성, 로동계급성을 반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의 변화가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학사 기술방법에서도 ‘주체’ 이전까지는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을 내세우고, 이후에는 ‘주체의 방법론’을 전면에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사 자체의 내적인 발전과정이 해명되지 않는 단점을 노정시킨다. 이는 아울러 문학사와 사회경제적 토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측면에서도 미흡하며, 사적 유물론의 과학성과도 거리를 지닌다. 이는 문학현상을 당대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반영하기보다는 당이념과 사상 의식의 표현에 두고 있는 그들의 문학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문학사 시대구분은 작품의 미학성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의 선규정적 도식의 기계적인 적용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sup>20)</sup>는 한계를 지닌다.<sup>21)</sup>

## 2. 수용 작가와 작품선택 양상

각 시기별 문학사에서 선택하고 있는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개괄하였다시피 북한의 경우 문학사에서 선택되는 작품들의 범위는 ①의 경우는 그 주류가 프로작가들이며 비 프로작가는 나도향, 김소월, 강경애, 홍명희 등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임화 등은 완전히 격하시켜 비판하고 있다. 김소월의 경우 남한의 문학사에서와는 달리 평가가 상당히 유보적이며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당대 인민들의 진실한 생활의 감정들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였지만, 그 진실은 3·1 운동 이후 양양되는 새로운 사회현실의 진실의

20) 민족문학사 연구소,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창작과 비평사, 1991), 91쪽.

21) 한편 남한의 경우는 10년 단위의 정치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회변동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이 지배적이다. 이는 정과리·홍정선의 『한국현대문학사』(『문예중앙』, 1998 봄), 현대문학사 편 『한국현대문학사』(1989) 등에서 드러나는데, 문학사의 내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정치·사회사적 구획 안에서 문학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상의 문제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장르별 전개양상을 모두 설명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광호 같은 논자는 분단체제의 변화양상을 남북한 문학사의 통합적 기준으로 삼아, 1)분단체제의 성립(1945-1959), 2)분단체제의 심화(1960-1979), 분단체제의 변화와 반성(1980-1995)으로 시대구분을 하면서 분단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향해 나아가는 문학적 실천의 흐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광호, 『문학사 인식과 시대구분』,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나남출판, 1995), 105-119쪽.

전면성에는 미치지 못한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sup>22)</sup> 요컨대 그의 문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의 문제를 시로 다루었을 때와 일제에 대한 통탄을 노래했을 때<sup>23)</sup>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카프 이외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미온적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는 혁명적 발전 속에서 역사적 구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을 묘사하고, 혁명적 낭만주의를 조화시키며,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원리를 문학의 가치평가에 적용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7년 김일성에 의하여 정립·간행된 『주체문예이론』 이후의 문학사에서는 ‘수령형상문학’ 쪽으로 비중이 옮겨간다. ②, ③, ④, ⑤가 이런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같은 입장에서 쓰여진 ②와 ③ 중에서 ③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에서는 카프문학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면서까지 부족한 현대문학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에서 찾고 있으며, 모든 창작의 방향을 주체사상에 두고 있다. 역사, 철학, 정치 등 모든 학문의 이론적 근거로 항일혁명시기의 김일성에 위치시키고 국민들을 교화하는 마당에 문학사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작품에 근거한 해석의 재구성이라는 큰 틀에 의하여 북한문학사는 항일 혁명투쟁시기의 구비적 가요와 연극대사를 새롭고 방대하게 재창조함으로써 1930년대 문학사를 새로이 구성하게 된다.

1960년대 중반의 이러한 기운, 즉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항일혁명운동의 전통을 강조함에 따라 역사인식이나 운동사를 파악하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작가와 작품의 선택 양상은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특징은 첫째, 그 이념에 맞지 않은 작가의 배제, 둘째, 문학작품의 광범한 개작 등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경우가 한설야의 배제라 할 수 있다. ①에서 임화 등의 제거와 맥락을 같이하는 한설야의 제거는 작가 선정의 기준이 문학성보다는 철저히 정치중심으로, 특히 카프계 중심에서 ‘주체사상’의 형상화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는 종파주의와 복고주의로, 또한 일제 때 군수의 아들이라는 죄명으로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조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당시 북한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려다 숙청

22) 『조선문학통사·하』(인동 편, 1988), 97쪽.

23) 위의 책, 같은 쪽.

당했다 한다.<sup>24)</sup> 둘째의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몇몇 작가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생활고 때문에 도시로 찾아와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야 하는 민보의 가난한 생활을 보여주는 이북명의 단편 <민보의 생활표><sup>25)</sup>는 발표당시와 달리 개작본에서는 ‘끓으나 죽으나 공장에서 싸워야 하며,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는 충호네와 손잡고 싸워나갈 굳은 약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6)</sup> ①에서 수록된 이북명의 작품은 <민보의 생활표>가 아니라 <질소비료 공장>, <오전 3시>, <출근정지>, <하나의 전형>, <바둑이>였다<sup>27)</sup>. 그러던 것이 ③에 와서는 <민보의 생활표>가 개작되어 실린 것이다. 이처럼 한 작가라도 작품 선택의 양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학관(마르크스-레닌주의)을 송두리째 깨트리며 오직 주체사상의 확립을 위해 작품 개작까지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엄홍섭의 경우도 ①에서 <빈견탈출기>, <승어>, <힘> 등의 작품이 실렸던 것이, ③에 오면 ①에 수록된 작품이 사라진 대신 <가책>, <아버지의 소식> 등이 개작된 양태로 문학사 속으로 편입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도 현재까지 개작임이 드러난 작품은 송영의 <음악교원>, 이기영의 <돈>, <봄>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작가 자신의 개작 이외에도 일제시대 때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대신 수정해서 내어놓은 경우(강경애의 <소금>, <인간문제>)도 있다.<sup>28)</sup> 문학 작품이란 특정 시기, 특정 사회 조건 속에서 생활한 작가의 정신활동의 산물이므로 동일작가가 다시 쓴 개작도 그렇지만, 타인에 의한 의도적 개작은 작품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북한의 문학이 예술성이나 미학적인 가치보다는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수단이요 당의 정강정책을 인민들의 현실 생활에 반영하는 훈련된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문학사의 객관적 기술에 역작용으로 기능한다.

24) 이철주, 『북한 예술인의 현주소』(통일원, 1987), 101~102쪽.

25) 『신동아』, 1935. 9.

26) 『조선문학사』 5, 325쪽.

27) 『조선문학통사』하권, 인동 편, 149쪽.

28) 이상경, 『문학의 역할 외면한 정치적 교양물』, 『한길문학』, 1990. 10, 123쪽.

④에 오면 주체의 문예이론이 요구하였던 이념적 성격에서 벗어나 작품선택 상상 역시 그 이전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정치적 이유로 ③에서 사라졌던 한설야의 작품(<승냥이>, <황혼>)이 다시 등장했으며,<sup>29)</sup> 반일 애국 문학의 범주로 만해와 소파의 작품이 추가된다. 아울러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 그룹에 이효석, 채만식, 심훈 등이, 부르조아 계몽문학으로서 육당, 춘원, 김억이 포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효석 같은 작가의 경우 경향적인 작품 이외에도 재치 있는 구성수법과 묘사력에서 소설가의 기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문학에 관한 그들의 열린 시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변화는 ⑤에 오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체문예이론』이 공표된 이래 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카프’계와 민족문학계열의 주요 문인들을 논의의 장 속으로 수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2년에 간행된 『주체문학론』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2장 ‘유산과 전통’에서 찾아지는데, 여기에서는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점을 특히 중시하고 이의 구체적 실천으로 “1920~30년대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3절에서 “작가의 출신과 사회적 생활경위가 복잡하다 하여도 우리나라 문학예술 발전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한 좋은 작품을 썼다면 그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대담하게 내세워주어야 한다”는 주장<sup>30)</sup> 등으로 뒷받침된다. 여기서 최근의 북한문학은 문학작품을 해당시기의 사회·역사적 조건과의 연관성 속에 공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역사주의적 원칙’과, 모든 문제를 인민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간다는 ‘현대성의 원칙’<sup>31)</sup>으로 수렴되면서 작품 자체를 반드시 주체문학 이론의 원칙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지 않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된 태도와 원칙은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작품 내적 요소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남북문학의 동질성 확보와 연속성 회복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인만 하더라도 한용운, 양주동, 박로아, 김달진, 심훈,

29) 『조선문학개관』, 인동 편, 166~167쪽.

30) 홍용희, 앞의 논문, 앞의 책, 45쪽에서 재인용.

31) 홍용희, 『통일문학의 원형성』, 『실천문학』, 2000 여름, 76쪽.

정지용, 백석, 이용악, 윤동주 등의 작품세계를 긍정적으로 평가<sup>32)</sup>하는 가운데, 북한의 문인과 독자들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직접 읽고 감상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도식적 범주의 작품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정지용의 경우 계급의식과 현실비판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원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민족적, 향토적 정서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수용된다. <향수>, <압천>, <고향>, <그리워> 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들과, <백록담>, <석류> 등 민족적 자연을 노래한 시들, <할아버지>, <홍춘>, <산애 색시 들녘 사내> 등 풍속을 노래한 시들은 결국 강점기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터요 평화로운 삶의 원형공간인 '민족'과 '고향'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백석의 작품은 <女僧>, <비>, <모닥불> 등 3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統營>, <固城街道>, <三千浦> 등의 시편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이들 시들은 가족의 이산으로 인한 식민지 민중들의 삶의 고난을 응축하거나, 기행시편을 통해 민족적 삶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이 땅의 자연과 풍물들을 묘사함으로써 '고향'의 복원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 수렴되면서 1930년대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연구 영역에서도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권영민 교수의 연구<sup>33)</sup>에 의하면 북한의 근대문학사 연구자들에 의해 반동적 부르주아 작가로 비판받았던 이광수, 현진건, 이효석, 채만식 등의 문학에 대한 재평가 작업(『조선 근대 및 현대 소설사 연구』, 1986)이 이루어지면서 그 진보적인 성격이 새로이 재조명되었으며, 시인 김소월, 한용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에 대한 연구』, 1988),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에 가려졌던 일본 식민지 시대의 계급문학운동에 대한 재조명(『주체문학론』, 1992)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문학사가 작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주체문학이론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작품 내적 요소에 무게를 실는 변화된 태도와 원칙

32) 홍용희, 『주체문학론』의 정립과 시대정신의 요청 - 최근 북한시의 특성과 동향』, 『문학사상』, 2002. 11, 43~45쪽.

33) 권영민, 『북한문학을 보는 눈』, 『문학사상』, 2002. 11, 35~36쪽.

을 보임으로써 남북문학의 동질성 확보와 남북한 문학 교류의 통로로서의 공통된 문학유산의 확충<sup>34)</sup>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학사 기술방식과 작품선택에 관한 논의는 작품 창작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음장에서 다루어진다.

### Ⅲ.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학적 실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1980년대 이후 창작되고 있는 작품들에 나타난 분단극복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이 시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시기가 분단체제 자체가 변화하고, 분단체제 자체에 대한 반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말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끝나고 남북한 모두가 냉전이념을 벗어난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식민지 지배와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족단위의 근대국가 건설에 대한 역사적 요구를 요청받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영향과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냉전이념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며, 노동자와 못 가진 민중을 그 중심에 두는 민중문학운동이 세력화하고, 이념과 형식에서 다양하고도 과감한 실험이 시도된다. 나아가 정보소비사회의 징후로 사이버와 환상문학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념적인 도식성을 벗어나 당대와 사회와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현실주제 문학’이 대두된다. 이는 특히 시에서는 ‘주체의 문학 이론’이 발전된 형태인 ‘주체의 시창작 이론’으로 나타나는데, 시창작에서의 도식성과 산문화 경향, 유사성과 미화분식을 극복하고, 진실된 생활체험에 바탕을 둔 서정성과 운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은 이론적 토대 위에서 북한의 시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다루어 온

34) 김재용, 『남북 문학계의 교류와 문학유산의 확충』, 『실천문학』, 2000 여름, 46~49쪽.



김일성과 그 가계 및 혁명 전통에 대한 찬양, 남한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조국통일에 대한 의식고취, 미국에 대한 증오와 저주 등의 내용을 형상화한다.

문학은 대화를 통해 축조되는 문학적 담론이며, 개인의 언어와 집단의 언어, 현재의 언어와 역사적 언어의 만남이 없다면 문학은 어둡고 왜곡된 세계를 비추지 못한다. 이 점에서 북한의 문학작품이 현실생활을 창작공간으로 회복하고 있다거나, 운율과 개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인식주체가 세계를 개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체제가 노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문학은 북측의 내부모순이나 분단의 상호 책임성, 독재정권의 허구성과 민중수탈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남북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학적 실천 노력을 찾는 북한 작품의 기저에는 남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이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편의상 시와 소설 순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먼저 분단극복과 통일에 대한 개성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리호근의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의 오월, 거기 서울에서  
세진이 분신하던 그해에  
여기 평양에서 우리 둘째딸이  
첫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지어달라기에 나는 긴 생각 없이  
외손주녀석을 세진이라 이름하였다

세진아!, 세진아! 하고 부르는 소리  
이 방 저 방 여저기에서 노래처럼 흐르는 우리 집  
아, 우리 집의 그 살뜰한 부름 속에  
서울 세진이의 분신은  
이렇듯 살아 무럭무럭 크고 있거늘  
그리하여 그렇게 커가는 나날  
통일열화 또한 더더욱 커지거늘

더불어 더불어 전해주기를,

35) 류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8), 34~45쪽.

이렇게 우리 집에 세진이가 있듯이  
 여기 북녘땅 그 모든 집집들에  
 종철이 한털이 그리고 강경대...  
 아, 우리의 털사들이 모두 있더라고  
 북녘의 학교들에 북녘의 가슴 가슴 속에  
 웃으면서 떠들면서 살아들 있더라고  
 그대들 부디, 부디 전해주기를!

- 리호근, <우리 집에 세진이가 있다> 부분36)

그는 1961년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부 창작과를 졸업한 북한의 대표적 시인 중의 하나이며, 2001년 범민족 대회의 대표로 참석했다.<sup>37)</sup> 이 시는 우선 남과 북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이다. 이 시는 우선 ‘주체의 시창작 이론’<sup>38)</sup>에 따라 전개된 북한 시의 경향<sup>39)</sup> 중 ‘남한 현실 비판과 조국통일의 과제’와의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일련의 시국사건을 시화하고 있는 북한의 시 유형에 해당한다. 이 시는 1986년 5월 서울 신림동 사거리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분신한 김세진의 죽음의 의미를 연속성의 입장에서 되살려내고 있다. 시적 화자는 김세진이 분신하던 그해 5월에 둘째딸의 첫 아들의 이름을 “긴 생각 없이” 세진으로 지어준다. 이는 김세진의 분신에 대한 시적 화자의 공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세진은 죽었지만 마침 그 때 태어난 외손주를 통해 김세진의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김세진의 분신이 된 아기를 통해 김세진의 이름은 노래처럼 흐르고, 그 정신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며 그것이 통일로 이어질 것을

36) 리호근, 『조선은 하나다』, 평양출판사, 1992, 136쪽.

37) 신동호, 『통일 염원 담은 『조선은 하나다』와 임수경 씨에게 주는 『새벽은 창가에』』, 『민족 21』, 2001. 10, 146~153쪽.

38) 김정일이 선도한 ‘주체의 시창작 이론’의 주요 내용은 장정춘 『조선현대시와 운률문제』(문예출판사, 1990), 강성만 『주체의 시가문학 건설』(문예출판사, 1990), 장용남 『서정과 시창작』(문예출판사, 1990) 등의 저작 참조.

39) 운동제는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혁명전통의 계승’, ‘개성적 운율창조와 서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남한 현실 비판과 조국통일 과제’ 등 세 가지로 고찰하고 있으며, 이 중 또 남한현실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는 시들은 남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미국에 대한 저주,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일련의 시국사건의 시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 운동제, 『도식성과 산문화 경향 극복을 위한 모색』,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 1995, 428쪽, 437쪽.

민는다. 이는 또 다른 인물인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등도 마찬가지다. 리호근은 민주화 운동을 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시각을 보인다. 사회정의는 민족문제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를 사회 변혁의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상하고 어려운 언어들 쓰지 않고 민중들이 알아듣기 쉽고 낭독에 편리한 운율의식을 갖춘 시로 형상화한다. 이는 시를 당대의 사회 역사적 조건과의 연관성 속에서(역사주의적 원칙), 민중들의 시각으로 처리하려는(현대성의 원칙) 북의 문학적 인식과도 일치한다. 이 시에서 시인은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1980년대의 역사적인 죽음과 세대를 굴복시킨 도덕성에서 찾고 이를 매개로 남과 북의 통합된 정서를 살려내고자 한다. 민족문학과 통일문학의 큰 틀 앞에서 내재적 논리와 역사적 변천을 인정하는 역사주의적 접근이 북한문학의 논의를 생산적인 담론으로 결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독재에 항거하다 죽은 김세진의 정신은 민족정서의 근간을 이루는 동질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물론 부족한 점은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자신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나타나지 않고 남한 체제의 비판에 시적 주체의 시선이 경도되어 있다는 데 있다. 분단의 상황이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니 서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무엇보다 김세진의 분신은 근본적으로 분단 구조가 만들어낸 희생물이며 이는 결국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정신을 면면히 되살리는 것은 민족의 통합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는 '주체의 시창작 이론'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태도는 그들의 남한 시 수용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바, 1993년에 들어 그들은 분단과 미국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 김남주의 <길>,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이재무의 <분단절>을 소개<sup>40)</sup>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헌신한 남측 인사들에 대한 동질감 의식은 “바야흐로 시작되는 인생일망정/통일을 위해서라면/그것을 초개처럼 버릴 줄 아는/저 립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나는 되어야 할 것이다/칠순 고령의 몸일망정 통일을 위해서는/그 몸 기꺼이 철창 속에 던지는/저 문익환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표〉, 8~9쪽)라는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이어지는 구절 “그래, 나는 과연 통일을 위해서라면/단두대 우에 서라도 미소짓는/그런 얼굴이 될 수 있는가?”와 “통일 없이는 그 어떤 웃음도

40) 『조선문학』, 1993년 11월, 79~80쪽.

그 어떤 참삶도 근 반세기는 액면 그대로 사상 최대의 가장 비참한 인간적인 나날의 점철이었다”(시집 ‘후기’) 같은 구절에 이르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인, 인격적인 가치를 통일 자체에 두고 있을 정도로 일관된 주제로 등장한다. 이 같이 통일문제를 다루면서도 체제에 대한 옹호보다는 남쪽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남쪽 사람들과의 굳건한 정서적 유대를 보인다는 것이 그의 시의 특징이다. “포스터 속 그 ‘헌혈행진’은/그대로 그림 속에서 빠져나와/거기 광주를 거쳐 오늘은/허리 농강나 너무도 많은 피 흘린/여기 분계선으로 헌혈하러 오기나 하듯/뜨겁게뜨겁게 이 가슴을 친다”(〈헌혈행진〉, 앞의 시집, 31~32쪽)에서 드러나듯 화가 홍성담의 그림을 통해 시적 화자는 광주항쟁과 만나고 분사분계선까지 시의 공간을 이동시키면서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만큼 그의 시는 다루는 소재가 다양하며 공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학생운동과 전대협에 대한 옹호, 관심도 그의 시의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다.

“호텔정문에 한 할머니/뭍단지 하나 소중하니 안고 오셨다/일인즉 ‘전대협’을/만나시겠다는 것/‘전’씨 성에/‘대협’이란 이름 가진 사람 찾듯/할머니 ‘전대협’을 외우시어/첫 순간에 어리벉벉했던 정문에서는/한참 뒤에야 수경이를 생각해냈다”

- 리호근, <네 이름은 전대협><sup>41)</sup>

“여기 평양거리에서/어찌나 슬한 손들이 일시에/저저마끔 잡으며 이끌었던지/수경이 손에 그만 상처가 났다//슬어보며 만져보며 움켜잡아보며/서로서로 그 손 놓지 않고저/밀치고 당겨대는 통에/순간에 수경이 손에 난 상처//……//어디 한번 더 잡아보자, 더 만져보자/너의 손. 너의 어깨, 너의 그 온몸/아아, 그것은/잃어버렸던 내 몸의 절반이 아니더냐!”

- 리호근, <상처><sup>42)</sup>

두 편 다 입수경과 관련된 시들이다. 앞의 시는 ‘전대협’을 남쪽에서 온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할머니의 일화를 시화한 것이다. 당시 ‘전대협’은 보수 진영의 우려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순수한 통일의지를 기반으로 그 세력을 키

41) 리호근, 『새벽은 창가에』, 평양출판사, 2001, 26쪽.

42) 리호근, 앞의 시집, 7~8쪽.

워나가고 있었으며, 전대협 대표로 1989년 한국외국어대학생이었던 임수경이 방북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임수경의 배후에는 ‘전대협’이 있고, 전대협의 뒤에는 통일을 열망하는 젊은 학생들의 마음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시인은 생각한다(“전대협이 왔다/……/여기 스물하나 애어린/림수경의 몸에 응축시켜/전대협은 웃으며 손을 저으며/바야흐로 평양비행장에서/내리고 있었다.”) 호텔 정문에서 임수경이 아니라 전대협을 찾은 할머니의 마음은 바로 시인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다. 뒤의 시에서 임수경의 몸을 “잃어버렸던 내 몸의 절반”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역시 민족 동질성의 확보를 위한 시적 실천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시에서 남북한 간에 여전히 문화와 현실인식에서 일정한 편차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때 이미 당신(황석영 - 필자 주)의 좌우익측에는/『껌테기는 가라』와 『함평고구마』를/수류탄처럼 추켜든 신동엽이며 문병란이 있었고/지금 저 원주골안에서 못난이구실을 하는 지하가/날창처럼 『오적』을 빼어들고 서있었소.//……//아, 이게 어떤 밤이요?!/남도에서 온 입자가 평양 문우 딸잔치에/이렇게 척 앉아 웃고있으니/7천만이 것처럼 바라는 그 순간속에/우리는 꿈이 아닌 현실을 안고 있던 말이요”

- 리호근, <오늘밤 잔치><sup>43)</sup>

시인은 통일을 지향한, 즉 통일을 위해 몸을 불태운 남녘의 작가인 황석영과 함께 시인 신동엽, 문병란, 김지하를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지만, “지금 저 원주골안에서 못난이구실을 하는 지하”라는 말을 씌우면서 김지하가 최근 펴고 있는 생명사상과 우주율에 관한 시작과 사상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 즉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는 다양한 경향들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천문학』, 2001년 봄호에 리태렬의 소설 <연필화의 주인공>과 함께 소개된 김귀련의 시 <단란>외 4편<sup>44)</sup>은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 어머니가 겪어야 하는 삶의 이야기(<단란>), 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모자간의 관계에 금이 가는 내용을 그린 젊은 부부 이야기(<부탁>), 샘 솟듯 솟아나는 사랑의 설레임(<이른

43) 리호근, 앞의 시집, 105~108쪽.

44) 『함께 읽는 북한문학』, 『실천문학』, 2001 봄, 393~430쪽.

봄>), 여성의 능력이 남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내용(<황진이>), 꽃을 피우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장미 피는 집>) 등의 여성주의 문학에 대한 다채로운 전개양상을 보여주면서 북한문학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즉, 사회변혁의식을 다루는 시들에서 남북간의 공통분모와 합치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정시에 대한 생각과 여성주의 등에서도 공통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이는 80년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북한의 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5)</sup>

한편 리호근의 시에서처럼 민족 동일성의 확인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루고 있는 남쪽의 김준태의 시 한편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는 남쪽에서 양쪽의 시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러나/광주시 연제동 연꽃마을 목욕탕/키가 큰 여덟 살쯤의 형이란 녀석이/이마에 피도 안 마른 여섯 살쯤 아우를 때밀이 용 베드 위에 벌러덩 눕혀놓고서/엉덩이, 어깨, 발바닥, 배, 사타구니 구석까지/손을 넣고 마치 그의 어미처럼 닦아주고 있었다/불알 두 쪽도 예쁘게 반짝반짝 닦아주는 것이었다./그게 보기에 영 좋아 오래도록 바라보던 나는 /‘형제여! 늙어 죽는 날까지 서로 그렇게 살아라!’/중얼거리려주다가 갑자기 눈물 방울을 떨구고 말았다.”

45) 이는 북한 최고의 현역작가(작가들이 기본집단인 창작사에 소속되어 창작활동을 하는 전업작가, 한편 출판사, 교수 등의 직장일을 하면서 창작을 하는 작가를 현직자가라 부른다.)로 손꼽히고 있는 시인 오영재의 장편서사시, <대동강>(문예출판사, 1985, 총 303쪽) 등의 세계와 비교해 볼 때 드러난다. <대동강>은 시인이 대동강이 시작되는 낭림산정의 금성언제에서부터 덕천→옥천혁명사적지→풍곡양어장→연풍호→개천→순천→비류강→삭창리→신성천→평성→봉화 미림갑문→평양→만경대→남포 갑문건설장에 이르는 여정을 도보나 차편(혹은 배편)으로 기행하면서 쓴 서사시로서 머리시, 제1~4편, 맺음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철저히 주체중심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 시에는 대동강의 역사와 대홍수, 6. 25 전쟁시 대동강의 공사를 지시한 김일성, 김정일의 찬양, 지주와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체제 우위성, 한강·영산강·낙동강 등에 대한 부정적 묘사(버림받은 이 나라의 강) 등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실었음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가장 승화된 경지에서 자기의 한 생을 총화해보려는 시인과 지리학자 최 교수의 삶과 함께, 시의 시작과 끝에 건설장의 기중기 운전공인 리수옥과 운수직장의 젊은 운전수 명훈의 이별과 결합의 구도를 삽입하는 낭만적 로망티시즘의 기법을 넣음으로써 집단적 위훈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김준대, <형제> 전문

키가 큰 여덟 살쯤의 형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섯 살쯤의 아우에게 때를 씻기고 있는 어린 두 형제에게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동은 지극히 사적인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린 두 형제간의 지극한 정은 사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남과 북, 민족의 하나됨에 대한 상징이다. 이 시가 남북의 하나됨에 대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작품의 미학적 형상화에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그들끼리만 살아야 하는 형제이면서도 형이 어머니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동생의 사타구니와 “불알 두 쪽도 반짝반짝 닦아주는 것”이다. 이 순간에 대한 찡찡한 묘사는 자칫 설부른 주장이나 내용주의로 빠질 수 있는 시적 의미를 보편적 감동으로 데리고 가면서 짧은 서정시가 큰 서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덩치가 큰 형제’인 우리 민족에게 이들의 극진한 사랑은 모방해야 할 대상이 되면서 현재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남북간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의미까지 들어 있다. 시적 화자가 눈물방울을 떨군 이유도 천하에 사고무친인 저 ‘어린 것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민족은 무언가’라는 자기 비판과 연민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을 당겨 생각하며 끝까지 굴하지 말 것을 빌어보는 것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무언의 다짐조차도 깔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남의 도움 없이, 남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형제간의 지극히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제는 우리 민족, 혹은 현대사의 축소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행에서 시적 화자가 떨군 눈물 방울은 분단의 아픔과 현실을 떠올리는 매개뿐만 아니라 극복의 의지까지도 내장하는 비장한 울음의 의미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 형제의 메시지는 무슨 거창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혈육의 정에 그 기반을 뒀으로써 공통의 정서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때 그 공간이 ‘평양’이라는 남쪽의 한 지역이라고 해서 분단극복에 방해가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는 또한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체문학이 지향하는 역사성, 현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면서도, 문학성에서 나무랄 데 없는 수준을 담지하고 있다. 이렇듯 간명한 서사를 통한

짧은 시적 형식 속에 우리 민족 모두의 문제를 녹여내면서 남북간의 공통적인 정서와 미학의 중심부를 형상화함으로써 민족분단의 극복과 하나됨에 대한 시적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설에 형상화된 분단극복의 모습을 살펴보자. 시의 리호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최근 남녘 사람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 생산되고 있다. 북한 작가가 남녘 젊은이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남북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과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냉전적 분단 구조 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타자화하지 않고 자기를 상대화할 수 있는 성찰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김남호의 중편소설 <만남><sup>46)</sup>은 시사적이다. 주인공 김대명과 정효나는 서울 S대학 85학번 동기인 같은 고향 출신이다. 김대명은 명석한 두뇌와 사고력으로 운동권에서 활동하다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대명의 현실관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건은 그의 러시아행. 그는 러시아에서 ‘현실사회주의의 운명’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아온 세계와 결별하고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같이 신문기자의 길을 걷게 된 두 사람의 현실관은 큰 차이가 난다. 현실 사회주는 실패했지만, 사회주의적 이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효나에 비해, 대명은 지난 날의 꿈은 허상이었으며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일 뿐이라는 허무에 빠져 있으며, 특히 1995년 북이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간 후, 북은 붕괴될 것이라는 냉전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둘이 결정적으로 부딪힌 것은 대명이 민간인 학살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사건이다. 그는 ‘지나친 반미는 국익에 해롭다. 덮어둘 것은 덮어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수행기자로 곁에서 목격한 정상회담의 감격이 자신의 허무주의와 현실론을 되돌아보게 하며, 남북이 서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가운데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대명의 현실론이 결국 외세와 냉전 세력들의 강고한 장애를 뚫고 남북이 서로 대등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민족 동질성 발견을 위한 문학적 형상화의 예이다.

46) 김남호, <만남>, 평양출판사, 2001.



장미현의 <변함없는 모습><sup>47)</sup>은 여성문학론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군더더기 없는 묘사가 문학성을 담지한다. 안성고등건설전문학교 수학교원 윤옥심이 동지들과 건설설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남편 로진건의 미완성 논문을 건설건재대학 홍석규 교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다는 스토리를 가진 이 작품은 교육자, 숨은 건설자로서 윤옥심이 자기가 사는 땅을 얼마나 사랑하며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는가를 보여준다. 논문을 완성시키는 것도 암질이 약한 지반 특성에 맞게 새로운 기초공법을 개발하여 고향의 모든 건설자들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서였다. 그의 가정은 모두 건설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의 아들 로태영 역시 건축을 지망하게 되는데, 한 인간이 집단의 염원이 담긴 기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숭고한 과정을 보여준다. 건축에서의 기초와 인간생활의 기초를 미학적으로 연결시킨 구성은 탄탄하며, 미완성 유고를 남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완성시켜준 교수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윤옥심의 아량을 보여줌으로써 한 여성의 숭고한 마음을 잘 드러냈다. 반미의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소설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약하며 전체적으로는 형상화가 빼어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소설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숨은 영웅을 다룬 소설의 범주로 넣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로정범의 <모닥불><sup>48)</sup>(1982. 6. 작)과 이성식의 <행복의 방아><sup>49)</sup>, 리리순, <행복의 무게><sup>50)</sup>와는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모닥불>은 작가인 나의 북대천 농장 취재기<sup>51)</sup>이다. 새 땅 찾기 운동에 나서고 있

47) 『실천문학』, 2000 여름, 237~255쪽.

48) 『실천문학』, 1999 겨울, 295~322쪽.

49) 『실천문학』, 2000 봄, 393~430쪽.

50) 『실천문학』, 2001 가을, 196~228쪽.

51) 북한에서 현역작가는 기본집단인 창작사에 소속되어 창작활동을 하는데, '4·15 문학창작단', '조선문학창작사', '조선영화문학창작사' 등은 북에서 가장 우수한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창작사는 본사에 소설, 시, 희곡, 아동문학, 외국문학, 고전문학창작실과 '백두산전설' 집필실, 군중문학창작지도실을 두고 있고, 금요일에는 북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금요노동에 참가하고, 때로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강조 필자) 대표적인 작가로는 북의 3대 중편소설의 하나인 <포성>을 쓴 정창운, <눈새바람>의 작가 홍석중, 단편소설의 왕으로 불리는 한웅빈 등을 들 수 있고, 시인으로는 북의 대표시인인 김철과 오영재가 유명하다. 아울러 현직작가는 출판사나 대학 등 한 기관에 소속되어 직장일을 하면서

는 김윤상, 범영감 등의 인물을 통해 일꾼이란 불을 지퍼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행복의 방아>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보여준다. 달래벌 송경식 작업반장 앞에 1년 간 현실체험을 하러 나타난 임성철이 몇 년 뒤 관리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행복의 무게>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과학기술축전에서 제네바금언상을 받고 돌아오는 여성을 그린 작품인데, 김일성의 과학중시시상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소재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들 소설은 전반적으로 숨은 영웅을 다루는 일련의 경향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현실을 다룬다는 친근감으로 다가간다. 이는 영웅주의적 비현실적 예술관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발표한 작품은 예술가 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북한의 소설이 숨은 영웅을 다루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여성문학 등의 개성적인 목소리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미학적으로도 우수한 작품들이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학적 실천으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만남>과 같은 남녘 사람들을 소재로 한 작품의 창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6·15 선언을 기점으로 냉전적 구조가 해체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소설적 경향은 분단의 해소와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진일보한 문학적 대응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북한소설과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남한의 소설이 바로 황석영의 『손님』<sup>52)</sup>이다. 『손님』 역시 남과 북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소설은 6·25 전쟁 후 월남하여 살다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요섭이 북한의 고향을 방문, 1950년의 황해도 신천 대학살 사건으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남아 있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기원을 추적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내용이다. 작가는 직접 그곳을 방문, 사실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며 지리적 묘사와 상황설정 등에 있어서도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어 실감과 깊이를 더해 준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선은 그 적대감의 기원을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참상’이나 ‘매제가 저지른 만행’이라는 냉전적 분단 구조 하에서 형성된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이다.

52) 황석영 『손님』, 창작과비평사, 2001.

마을 사람들이 한 쪽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죽였다는 맑시즘과 기독교의 충돌로 이끌고 간다는 점에 있다. 직접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것은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와 맑스주의는 식민지와 분단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지니게 된 모더니티인데, 기독교는 봉건지주의 기득권과 결합하였고 맑스주의는 배고픈 소작인의 분노와 결합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손님 자격으로 스며든 기독교와 맑시즘이 어떻게 변질되어 한 마을 사람을 살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그 손님에 의하여 분열된 주인의 의식을 봉합하여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우리의 것’인 황해도 진지노귀굿 열두 마당이다. 이 열두 마당의 열개 속에서 작가는 기존의 리얼리즘 형식을 뛰어넘어 원귀들의 입을 빌어 원한의 뿌리를 따져 올라가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고 화자가 변갈아 교차되는 새로운 실험을 감행한다. 주인공 격인 요섭의 목소리와 귀신이 되어 나타난 요한, 순남이 아저씨, 일랑, 요섭의 삼촌과 형수의 목소리까지 변갈아 나타난다. 그리하여 살육과 광기의 와중에 다른 편으로 갈라진 이들이 영혼으로 돌아와 말하고, 보여주고, 성찰하는 이 한편의 굿으로 어렵사리 화해와 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타자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상대화할 수 있는 성찰로 분단의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김 교수와 신천박물관장 등 남북 양쪽에서 냉전적 적대감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대감의 해체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해의 길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알려주는 작품<sup>53)</sup>이다. 다만 양민학살의 책임을 ‘손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용은 1949년 6월 이후 보도연맹으로 빨갱이들의 무자비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북은 조국전선으로 반동에 대한 숙청이 예고되는 등 남북 모두에서 이루어진 냉전적 적대의식의 확산과 같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친착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sup>54)</sup> 그러나

53) 김재용, 『냉전적 분단구조 해체의 소설적 탐구』, 『실천문학』, 2001 가을, 322~332쪽.

54) 김재용, 앞의 논문.

분단 반세기가 지난 이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는 우리 민족에게 『손님』은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움과 깊이를 아울러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와 소설에 드러나는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학적 실천을 북한문학을 중심으로 남한문학과 아울러 살펴본 결과 최근의 작품들은 상대 쪽의 인물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며 내용적으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족적 동질성의 원형 요소를 찾아 하나로 지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6. 15 공동선언 후 남북에 붙고 있는 바람과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온 체제 내의 역사 가운데서도 문단 역시 활발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개성들을 수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IV. 나오는 말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문학의 소개가 활기를 띠면서 우리 학계는 물론 일반에까지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몇몇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카프’계를 중심으로 한 작가·시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남북 동질성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여 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문학의 경향과 지향점을 개괄하는 교재가 개발되면서 대학에서 북한문학에 관한 강좌가 속속 개설되고 있으며, 개별 작가와 작품에 이르는 통시적 고찰 등의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에서도 당의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학계와 문단에서도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양화되고 작품의 문학성에 대한 가치 지향도 생겨나면서 관심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이 조금씩 다져지고 있다.

남한 쪽에서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우리 학계가 서구의 마르크시즘을 활발하게 수용해 왔으며, 러시아와 동구의 정통사회주의 예술론의 번역보급으로 인한 일반인의 이해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쳐 분단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론의 좌우파 대립을 경험함으로써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문학적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

을 터이다. 이러한 배경과 활발한 연구는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되고 있다. 북한문학은 권력지배의 수단으로 담론의 지배를 수행해 온 폐쇄성으로 인해 현실의 미세한 변화까지는 담지하지는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로 나타난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도 내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성채를 쌓아가면서 강성대국(1998)과 선군정치시대(先軍政治時代, 1998)의 공표 등으로 나아가는 그간의 대응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를 통한 지배라는 관점과 공식적인 현실관만을 인정하던 그 간의 정책은 『조선문학사 9』(1995)에서 크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경향의 문학작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학계나 문단에서 최근 작품의 미학적 성취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반세기가 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한 다른 문학적 지향의 타성을 극복하고 문학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만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문학사 관련 저술에 나타난 문학사 기술의 체계와 작가 및 작품 선택 양상을 통해 북한 문학사의 전반적인 성격과 변모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남북한 작품을 통해 분단극복을 위한 문학적 실천 노력을 고찰하기 위해 쓰여졌다.

‘주체문예이론’이전과 이후로 북한문학사를 구분했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이전의 것이 이후의 것보다 더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이다. ‘주체문예이론’ 대두 이후의 문학사는 1926년 10월 17일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한 날을 주체사상의 시발점으로 주체사상의 역사를 새롭게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명분 아래 그 이전의 문학사를 전면 수정, 서술의 내용까지도 바꾸고 있다. ‘주체문예이론’ 이전의 북한문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체문예이론’의 등장 이후부터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논쟁이 항일혁명문학에 그 주도성을 넘겨주게 된다. 북한의 문학사는 이와 같이 ‘주체문예이론’에 근거를 둔 당성, 노동계급성, 역사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가치를 분석,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사에서 선택되는 작품들의 범위 역시 주체문예이론 이전에는 그 주류가 프로작가들이었으나, 주체문예이론 이후의 문학사에서는 역사인식이나 운동사를 파악하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작가와 작품의 선택 양상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념에 맞지 않은 작가의 배제, 문학작품의 광범한 개작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작품성보다는 정치성의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문학사에서는 주체의 문예이론이 요구하는 과도한 이념적 지향에서 벗어나 작품선택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으니, 부르조아 계몽문학과 반일 애국 문학,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 그룹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이효석은 비경향적인 작품도 재치 있는 구성수법과 묘사력에서 소설가의 기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문학에 관한 그들의 열린 시야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1990년대에 간행된 문학사에서는 ‘주체문예이론’이 공표된 이래 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카프’와 민족문학계열의 문인들을 수용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작가의 출신과 생활경위보다는 문학예술 발전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한 작품을 세우는 등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작품 내적 요소에 치중함으로써 도식적 범주의 작품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남북문학의 동질성 확보와 연속성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체의 문예이론’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문학의 창작에서는 문학사와 작품평가에서 보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대의 사회와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주의 현실주제 문학의 대두’와 함께 인물과 공간을 남한으로까지 확대하는 작품들을 비롯한 문학의 질적 변화와 안목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의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런 노력은 김준태 등을 비롯한 남한 시인과 황석영을 비롯한 소설가들의 합일지향의지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남북한 문학의 민족 동질성의 확보와 분단극복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그동안 소략했던 이 방향의 연구를 원점에서 상기시키고 최근의 남북한 작품 창작의 현황과 공통의 지향점을 찾아봄으로써 남북한 문학사 연속성 확보의 작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진전된 작업은 후일을 기약한다.

주제어 : 분단극복, 합일지향, 주체문예이론, 주체의 시창작 이론, 문학적 실천, 민족 동질성 확보.

## 참고문헌

- 『조선문학사』Ⅰ·2,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2.
- 『조선문학사』Ⅰ~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1982.
- 『조선문학사』Ⅰ~14,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1990~2003.
- 『조선문학개관』, 정홍교·박종원·류만,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조선문학통사』장·하,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59; 도서출판 인동, 1989.
- 권영민, 『북한에서의 근대문학연구』, 『문학사상』, 1989. 6.
- 권영민, 『북한문학을 보는 눈』, 『문학사상』, 2002. 11.
- 김귀련, <단란> 외, 『실천문학』, 2001 봄.
- 김남호, <만남>, 평양출판사, 2001.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용, 『냉전적 분단구조 해체의 소설적 탐구』, 『실천문학』, 2001 가을.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중희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1』, 청동거울, 1999.
- 김중희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 로정법, <모닥불>, 『실천문학』, 1999 겨울.
- 리라순, <행복의 무게>, 『실천문학』, 2001 가을.
- 리호근, 『조선은 하나다』, 평양출판사, 1992.
- 리호근, 『새벽은 창가에』, 평양출판사, 2001.
- 신동호, 『통일 염원 담은 『조선은 하나다』와 임수경 씨에게 주는 『새벽은 창가에』』, 『민족21』, 2001. 10.
- 신형기·오성호, 『분학문학사-항일혁명에서 주체문학까지』, 평민사, 2000.
- 오영재, 『대동강』, 문예출판사, 1995.
- 이성식, <행복의 방아>, 『실천문학』, 2000 봄.
- 장용남, 『서정과 시창작』, 문예출판사, 1990.
- 홍용희, 『통일문학의 원형성』, 『실천문학』, 2000 여름.

홍용희, 『주체문학론의 정립과 시대정신의 요청-최근 분학시의 특성과 동향』,  
『문학사상』, 2002. 11.

황석영, 『손님』, 창작과비평사, 2001.



<Abstract>

## The Description System of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 and Literary Practice for the Conquest of the Division

Sohn, Jin-Eun

This thesis aims at studying the description system of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 in our perspective and the union oriented spirit represented in South & North Korean literary works, and presenting the way for the conquest of the division.

I studi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 on the basis of five kinds of related books. These classifications are founded in the *juch'e* ideology literary theory. So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 Book's general estimation to literature was not literary excellency, but *juch'e* ideology till the beginning of 1980s. But Literary History Books published in the middle of 1980s, show change in selection of literary works. For example, they include the works of bourgeois literature, patriotic literature, and realistic novels. And Literary History Books published in the middle of 1990s, they include the writers of KAPF and national literature. It represents that they place the inner constituents the first factor in the estimation of literary works.

North Korean writers also pulling themselves out of ideological tendency gradually, show the qualitative change and view's extens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Especially, the novels as Hwang, Seok-young's 'A Visitor'(손님) and Kim, Nam-ho's 'Meeting'(만남) using other side's characters, ideology and spaces, we can identify that South & North Korean literary works have features to seek national homogeneity.

Key Words: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 the conquest of the division, the *juch'e* ideology literary theory, national homogeneity